

# 『신과 함께』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 연구\*

이상민\*\*

1. 서론
2. 이승과 저승, 두 계(界)의 상호관계성
  - 2-1. 저승 수평적 관계로 형상화된 서쪽 타계(他界)
  - 2-2. 이승 장소성 획득과 장소 상실의 충돌
  - 2-3. 이승의 부조리함에 대한 타계(他界)의 개입
3. 이승과 저승 공간에 편재된 아이러니
  - 3-1. 인간이 빛어낸 상황적 아이러니
  - 3-2.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극적 아이러니
4.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과 함께』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를 분석하여, 이것이 실천적 담론 행위로 연계되는 지점을 밝혀보기 하였다. 『신과 함께』에는 이승과 저승의 공간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기에, 이 공간 대립의 상징적 의미가 만화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립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풍자, 비판, 극적 긴장 등의 아이러니를 일으키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승과 관계 맺고 있는 타계에는 수직적 방위 개념의 천상과 수평적 방위 개념의 저승이 있었다. 천상에는 초월적 신격 존재들이, 저승에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신들이 살고 있었다. 이승에는 자기 정체성을 파괴

---

\* 본 연구는 201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하는 장소 상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립 공간이었던 이승과 저승이 저승의 도움을 받아 이승으로부터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이러니의 긴장이 강화되었다.

『신과 함께』에는 이승과 저승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여 발생하는 상황적 아이러니와 알고 있음과 모름의 대비를 통해 일어나는 극적 아이러니가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과연 이승의 삶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영위되고 있는지, 우리가 꿈꾸는 영생의 보편적 욕망에 가려 무지의 희생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과 함께』에 중층적으로 얹혀 있는 이질적인 여러 사건들의 충돌을 공간성과 아이러니로 풀어내었다. 그리고 이것의 상징적 의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행동의 시학 지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신과 함께』, 이야기성, 공간성, 아이러니, 실천적 담론)

## 1. 서론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작품으로,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웹툰이다. 『신과 함께』는 네이버 연재 이후 단행본<sup>1)</sup>으로 출간되었고, 2017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부천만화대상,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만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신과 함께

1) 본 논문에서는 주호민, 『신과 함께』, 애니북스, 2015 단행본을 활용하였음. 이하 인용은 편명과 쪽수만 나타냄.

』는 단행본 출간의 경우 〈저승편〉 3권, 〈이승편〉 2권, 〈신화편〉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승편〉이 먼저 완결된 후, 〈이승편〉이, 그리고 프리퀄(prequel)의 성격으로 〈신화편〉이 나왔다.

『신과 함께』는 한국의 전통 신들과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과 함께』에는 다양한 고전 텍스트가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와 경기도의 본풀이인 〈차사본풀이〉, 〈천지왕 본풀이〉, 〈이공본풀이〉, 〈성주풀이〉 등이 나타난다. 『신과 함께』는 이러한 한국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이야기의 틀을 만들어 내었다.

지금까지 『신과 함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화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신과 함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강미선<sup>2)</sup>의 연구는 작품 연구에 대한 첫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김진철은 『신과 함께』에 수용된 제주 신화의 양상을 밝혀내고자 하였고<sup>3)</sup>,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의 일부로 『신과 함께』를 논하기도 하였다.<sup>4)</sup> 황인순<sup>5)</sup>은 〈차사본풀이〉와 『신과 함께』의 공간의 관계와 인물들의 공간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신과 함께』가 OSMU(one source multi use)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대범<sup>6)</sup>의 연구

2) 강미선, 「웹툰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웹툰『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5권,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11, 89-115쪽.

3) 김진철, 「웹툰의 제주신화 수용·양상-『신과 함께』〈신화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화회, 2015, 37-62쪽.

4) 김진철,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한국콘텐츠학회, 2015, 85-95쪽.

5) 황인순,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신과 함께』와 〈차사본풀이〉의 비교를 통해」,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53-384쪽.

6) 김대범, 「『신과 함께』의 체험 공간화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7-22쪽.

는 『신과 함께』 저승편을 소재로 테마파크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신과 함께』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김정우<sup>7)</sup>의 연구는 다문화교육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신과 함께』에 대한 연구는 이 작품의 기반이 된 한국 신화와 설화가 어떤 변용의 과정을 거쳤는지 밝히고자 한 것과 이 작품이 문화산업콘텐츠로써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신과 함께』가 갖고 있는 작품의 의미를 고찰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신과 함께』는 한국 신화와 저승관을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를 구성해 내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담론의 의미는 인간의 삶에 대한 현재의 이야기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신과 함께』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과 함께』에 담긴 상징 언어가 무엇인지 밝혀내어야 이야기로서 『신과 함께』가 갖고 있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리쾨르는 상징 언어가 갖고 있는 힘에 주목하였는데, 상징 언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말이다.<sup>8)</sup> 다시 말해 『신과 함께』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로 다가와 스스로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야기성이 무엇인지 해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과 함께』에 이승과 저승의 공간성과 아이러니로 나타나 있다고 보고, 이를 본 연구에서 밝혀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과 함께』가 실천적 담론 행위로 작용할 수 있는 이야기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텍스트로서의 이야기란 형태나 구조를 넘어, 그 생산자와 수용자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실천적 담

7) 김정우, 「전통문화 교육 자료로서 웹툰의 활용에 대한 고찰-〈신과 함께〉에 반영된 저승관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 171-200쪽.

8)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240쪽.

론 행위이며 ‘사건’이다.<sup>9)</sup> 실천적 담론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인데, 이는 이야기를 매개로 했을 때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한다. 등장인물을 어떤 비유로 간주하여 ‘마치 누구인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모습을 부여하면서 자기 삶의 뜻을 찾고 세상을 다시 그리는 것이다.<sup>10)</sup> 『신과 함께』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다를 수밖에 없는 죽음과 너무나 궁금하지만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저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신과 함께』의 이야기는 웹툰 속 주인공의 이야기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곧바로 전환되게 된다. 『신과 함께』의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에는 이질적인 여러 사건들이 중층적으로 얹혀있다. 이러한 사건의 층위는 이승과 저승의 공간 속에 펼쳐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건과 공간의 의미를 풀어내어 『신과 함께』가 실천적 담론 행위, 행동의 시학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이승과 저승, 두 계(界)의 상호관계성

『신과 함께』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두 계(界)가 마치 평행선을 달리듯 구현되고 있다. 인간은 이 두 공간을 함부로 오고갈 수 없지만, 저승차사들은 끊임없이 넘나들며 명이 다한 인간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신과 함께』의 저승차사들은 때때로 부도덕한, 무질서한, 이승의 불의에 맞서며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도 한다. 저승차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대개 이승의 세계에서 일어나며 ‘사건’이 된다. 왜냐하면 저승차사들은 원칙상 이승에서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9)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240쪽.

10)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237쪽.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승과 저승에서 어떤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승과 저승의 두 세계가 『신과 함께』에서는 어떤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느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승과 타계의 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이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 2-1. 저승: 수평적 관계로 형상화된 서쪽 타계(他界)

이승과 저승, 두 계(界)는 서로 다른 공간이다. 이승은 생(生)의 공간, 양(+)의 공간, 긍정의 공간이라면, 저승은 사(死)의 공간, 음(-)의 공간, 부정의 공간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승과 저승은 삶과 죽음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단절의 관계이자 대립의 관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 삶의 방향은 모두 이승에서 저승을 향해 가고 있고, 저승은 누구나 가야하는 마지막 종착점이다. 죽어서라도 가기 싫은 저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저승을 이승과 단절된 공간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저승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저승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명료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 신화 체계 속에서 저승의 개념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신화의 타계(他界)를 연구한 오세정<sup>11)</sup>에 따르면, 한국 신화에서 인간 세상을 창조해 내는 대표적인 타계(他界)는 하늘이다. 하늘은 초월적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대개 신격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신들이 사는

---

11) 오세정, 「한국 신화의 타계(他界: the other world) 연구-수평적 방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17-335쪽. 이 단락은 오세정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하늘과 인간이 사는 이승은 수직적 방위 체계를 갖는다. 이 신화 체계는 ‘성(聖) : 속(俗)’, ‘천상세계 : 지상세계’의 관계적 의미를 갖는다. 오세정의 연구에서는 수직 공간 개념에서 위에 하늘이 있다면, 수평 공간 개념에서 땅의 끝 혹은 땅 너머에는 바다가 있고, 그 너머의 세계 역시 타계(他界)로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바다 너머의 타계와 함께 또 하나의 수평 공간은 바로 서쪽 세계이다. 수평적 방위의 개념으로 서쪽 끝으로 이동하면 인간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만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는 한국 신화에서 서쪽 세계가 갖는 문화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추출해 낸다. 서쪽의 세계는 신성한 존재나 귀인이 살고 있는 세계로 나타나거나 탈속(脫俗)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속의 인간에게 삶에 대한 긍정은 죽음에 대한 부정이지만, 현실의 삶이 고통이라면 오히려 죽음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과 함께』의 〈저승편〉에서는 39살에 죽은 김자홍이 일곱 명의 신에게 일주일씩 총 49일 동안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저승편〉에서 실질적 주인공은 염라국 국선 변호사 진기한으로 보인다. 그는 저승에서 김자홍이 무사히 일곱 번의 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의 변호 전략을 통해 열 개의 지옥과 여섯 개의 환생문으로 이루어진 저승의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승삼차사인 강림도령과 일직차사 해원매, 월직차사 이덕춘과 함께 김자홍은 저승에 가기 위해 저승열차를 탄다. 저승 입구인 초군문(初軍門)까지 가는 저승 열차는 대화역에서 출발해 서쪽을 향해 간다.

〈신화편〉에서 보면 김치고을의 사령이었던 강림이 염라대왕을 만나러 저승을 가는 장면이 나온다. 강림은 김치고을의 과양생이 부인의 세이들이 급작스럽게 죽은 이유를 묻기 위해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모셔 오라는 사또의 명을 받게 된다. 강림은 저승을 가기 위해 서쪽으로 걷기

시작한다. 이처럼 『신과 함께』에서는 이승에서 저승을 갈 때 서쪽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1] 저승열차 모습<sup>12)</sup>



[그림2] 강림이 저승을 찾아 떠나는 모습<sup>13)</sup>

반면 오천강 연못물에 빠져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천상을 가고자 한 녹두생이는 두루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물에 빠진 녹두생이의 어머니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은 저승차사의 임무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바꾸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힘은 천상의 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림3] 녹두생이가 두루미를 타고 천상으로 가는 모습<sup>14)</sup>



[그림4] 천상왕이 명령을 내리는 모습<sup>15)</sup>

『신과 함께』에서 저승은 이승의 서쪽에 위치한 수평적 방위 개념의 타계(他界)로 그려지고, 천상은 이승의 위쪽에 위치한 수직적 방위 개념

12) 〈저승편〉上, 19쪽.

13) 〈신화편〉下, 237쪽.

14) 〈신화편〉下, 112쪽.

15) 〈신화편〉下, 127쪽.

의 타계(他界)로 그려진다. 수직적 관계의 천상은 이승과 저승의 수평적 관계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천상의 신들과 저승의 신들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저승의 신들은 천상의 신들에 비해 신적 존재로서의 위력은 다소 약하다.

천상은 건국신화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하늘은 신성하며 성스러운 세계이기에, 천상의 신들도 초월적 위상을 가진다. 천지왕인 옥황상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며, 그의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각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천상계 출신의 신적 존재이다. 이들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인간적 능력을 갖추었다.

이에 반해 대별왕과 소별왕 밑에서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들은 인간이 신으로 승격한 경우이다. 저승삼차사인 강림, 해원, 이덕춘은 이승에서 죄를 지었으나, 삶의 부조리함에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죄였다. 이들은 지옥에 가거나 차사일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차사로서 역할을 선택하게 된다. 인간이었던 이들은 천상의 신들처럼 초월적 능력을 갖진 못하지만, 이승에 사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이 된다.

## 2-2. 이승: 장소성 획득과 장소 상실의 충돌

〈이승편〉은 한울동 달동네에 살고 있는 동현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가택신의 이야기이다. ‘한울동 101-5번지’의 집에는 얼마 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동현이와 할아버지 단둘이 살고 있다. 한울동 달동네는 재개발 예정 지구로 동현이와 할아버지는 집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여력이 안 되는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철거 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낸 건설업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동현이와 할아버지의 집 ‘한울동 101-5번지’는 하나의 공간이다. 공간은 장소와 다르다. 공간은 추상적이고 기능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장소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다.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 사건, 사람 간의 소통 등이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가 창출되고 상징을 띠며 맥락화가 일어나면 장소가 된다.<sup>16)</sup>

아-푸 투안은 공간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고, 장소는 멈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공간과 장소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경험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종종 장소의 의미와 융합된다.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을 장소가 된다. 건축가들은 장소의 공간적 성질에 대해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공간의 입지적(장소) 성질에 대해 훌륭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공간”과 “장소”的 개념을 정의하려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장소의 안전(security), 안정(stability)과 구분되는 공간의 개방성, 자유, 위협을 알고 있으며 그 역 또한 알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공간을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장소는 정지(멈춤)이다. 움직임 속에서 정지할 때마다 입지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sup>17)</sup>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곳은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장소성(paleness)은 인간이 장소에 대해 느끼는 애착과 정서의 교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스만은 이를 문화적 기억<sup>18)</sup>이라고도 부른다. 문화적 기억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책, 그림, 장소 등에 남겨진 흔적으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승편〉의 공간적 배경이자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중심 소재인 ‘한

16) 이상민, 「농촌 장소의 재탄생」, 임학순 외, 『문화농촌·창조농촌』, 북코리아, 2015, 37쪽.

17) 아-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윤, 1999, 19-20쪽.

18)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울동 101-5번지'는 인간과 가택신으로부터 각각 장소성을 획득한다. 공간이 장소성을 갖는다는 것은 공간 속에서 인간과 정서적 교류가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림5] 한울동 101-5번지 모습<sup>19)</sup>



[그림6] 오락실 모습<sup>20)</sup>

무엇보다 이 공간은 동현이와 할아버지의 보금자리로, 장소성을 띈다. 달동네에 위치한 허물어져 가는 공간이긴 하지만 동현이와 할아버지에게는 얼마 전 세상을 뛴 할머니와의 살가운 추억이 가득 담긴 곳이다. 존 애그뉴<sup>21)</sup>는 ‘의미 있는 곳’이 되기 위한 장소로서 세 가지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위치(location), 현장(locale), 장소감(sense of place)이다. 위치는 말 그대로 지도에 나타난 좌표를 말하고, 현장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물질성을 말한다. 여기에 장소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때 장소감이 생기는데, 이 때 장소감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울동 101-5번지’는 동현이와 할아버지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되기 위한 장소로서 그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승편〉에서 ‘한울동 101-5번지’는 인간들뿐 아니라 이 집을 대대로 지켜 온 가택신들에게도 의미 있는 곳으로서 장소성을 갖고 있다. 가택신의 탄생 과정은 〈저승편〉에 들어 있다. 녹두생이의 사연을 들은 천상

19) 〈이승편〉上, 18쪽.

20) 〈이승편〉上, 40쪽.

21) 팀 크레스웰, 『장소』,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2012, 9쪽.

왕이 화액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는 가택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녹두생 이의 어머니 여산부인과 일곱 형제를 신으로 추대한 것에서 가택신이 생겨났다. 어머니 여산부인은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되었고, 녹두 생이는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이 되었다. 첫째부터 다섯째는 각각 동서 남북과 중앙을 관장하는 오방신장이 되었고, 여섯째는 뒷문신이 되었다. 패악을 부렸던 노일자대는 측간의 신이 되는 형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악한 기운이 정화되어 가택신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금슬이 무척 좋았던 황우양과 막막 부부는 저승의 대별왕의 부탁으로 가택신이 된다. 황우양은 대들보를 지키는 성주신이, 막막부인은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된 것이다.

[그림기] 가택신의 현신 모습<sup>22)</sup>

가택신은 ‘한울동 101-5번지’가 혈리면 함께 소멸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재개발이 되어 새로 짓는 집에는 뒷간, 부뚜막, 성주단지가 없기 때문에 가택신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공간이 없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이 없으면 의미 있는 곳으로서의 장소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승편〉에서 가택신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보다 동현이와 할아버지의 걱정이 앞선 모습이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강제 철거를 실행하려는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택신이 그려진다.

가택신은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처럼 동현이와 할아버지의 든든

22) 〈이승편〉上, 22쪽.

한 올타리가 되어준다. 가택신들은 인간의 몸으로 혼신(現身)하여 동현 이를 보살펴 주고 할아버지를 돋는다. 조왕신은 동현이와 할아버지에게 밥을 해 먹이고, 측신은 동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고 공부를 가르쳐준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택신은 강제 철거를 하려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성주단지가 깨져 집을 지키는 성주신이 소멸을 하고 만다.

가택신들이 천상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집집마다 액을 막아주고 복을 내려주는 것이었다. 황우양이 성주신이 되었던 이유도 화액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가 성주신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은 그가 인간이었을 때, 금슬이 좋던 황우양과 막막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 소진항의 횡포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모순되게도 이승에서 화액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진항과 같은 자들은 다름 아닌 인간이다. 결국 가택신들은 집과 집주인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인간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 집 안에서 살던 가택신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느낀 인간 세상에 대한 환멸이 대화 속에 드러난다.

성주신: 지금껏 집에만 있다가 요즘에 세상 구경을 해 보니까 많을 걸 느낀다.  
인간들의 세상이란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배웠지. 한 쪽이 살려면 다른 한 쪽이 죽어야 한달까?

조왕신: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둘 다 살면 되잖아.

성주신: 문제는 누구든지 자신은 사는 쪽일 거라 생각한다는 거지.<sup>23)</sup>

가택신들은 함께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한다. 한 쪽을 없애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

23) 〈이승편〉上, 213쪽.

세상의 논리는 참으로 가혹한 것이다. 그럼에도 가택신들은 자신들의 장소를 침입해 오는 인간들에 대한 극한 적대감은 삼간다. “측아, 조왕아, 미워도 사람이란다. 적당히...”<sup>24)</sup>라는 성주신의 말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가택신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승은 가택신들에게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흔적으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문화적 기억의 장소인 것이다. 그리고 ‘한울동 101-5번지’는 동현이와 할아버지, 이 집의 가택신들로부터 다층적 장소성을 획득한 곳이다. 그러나 결국 이 곳은 재개발 시행과 할아버지 죽음으로 인해 장소 상실(placelessness)을 일으키게 된다. 장소 상실은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장소들이 사라지고 보편적이고 익숙한 경관과 획일화가 나타나는 것이다.<sup>25)</sup>

도시 재개발 사업은 그 곳에 뿌리 내리고 살던 원주민들을 내쫓는다. 특정 장소에 터를 잡았다는 말은 그 곳에 살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구성하며 삶을 영위했다는 말이다.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한울동 101-5번지’의 장소성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인간들에 의해 상실되고, 그 집의 가택신은 소멸하게 되어버렸다.

---

24) 〈이승편〉下, 48쪽.

25) 이상민, 「농촌 장소의 재탄생」, 임학순 외, 『문화농촌·창조농촌』, 북코리아, 2015, 38-39쪽.

26) 에드워트 렙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95쪽.



[그림8] 강제 철거 당한 한울동 101-5번지<sup>27)</sup>

〈이승편〉에는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행해지는 인간의 무자비한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본의 논리가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곳이 이승의 질서이다. 주변의 냉대, 차별, 멸시 속에서 집을 지키려는 할아버지와 가택신의 저항은 무기력할 뿐이고, 그 장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다.

장소 상실은 곧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장소성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의 물음에 대해 내가 딛고 있는 땅 위에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소가 없어진 상태에서 인간 삶과 실존, 자아에 대한 근원의 물음이 더 이상 이승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2-3. 이승의 부조리함에 대한 타계(他界)의 개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승과 이승은 수평적 방위 개념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이승과 천상계는 수직적 방위개념의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자리 잡은 저승, 이승, 천상은 특별히 허락된 자만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특히 천상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신성시된 곳이다. 『신과 함께』에서는 처음으로 천상에 도달한 이는 사

27) 〈이승편〉下 25쪽, 274쪽.

라도령이다. 사라도령은 김진국의 왕자로, 후에 이웃나라 원진국의 원강아미와 결혼을 한다. 꿈에서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난다. 꽃감관이 된 후 부인을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하늘의 신이 된 이후에 다시 이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들 할락궁이를 낳은 원강아미는 이승에서 천년 장자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죽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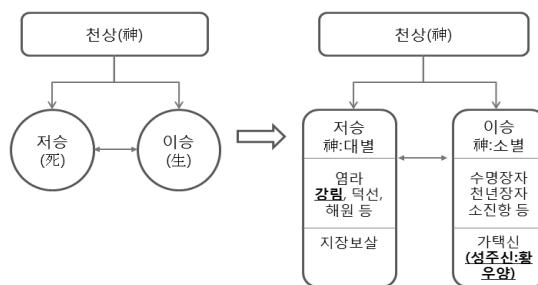
이미 신이 되어 버린 후 이승으로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사라도령과 달리, 천상을 오고간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라도령의 아들 할락궁이와 여산부인의 아들 녹두생이이다. 이들은 이승에서 벌어진 참혹한 상황을 천상의 신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자 천상으로 진입한다. 할락궁이와 녹두생이가 천상에 온 목적은 같았는데, 바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에서 아버지 사라도령을 만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혼살이꽃, 뼈살이꽃, 피살이꽃, 살살이꽃, 숨살이꽃을 가지고 이승으로 내려온다. 이후 할락궁이와 원강아미는 천상의 서천꽃밭으로 가서 살게 되고,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꽃감관을 이어받게 된다. 녹두생이의 어머니는 노일자대의 음모로 강에 빠져죽었다. 십장생 두루미를 타고 천상으로 간 녹두생이도 천지왕으로부터 오천강의 물이 마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할락궁이로부터 어머니를 환생시킬 수 있는 꽃을 받아 이승으로 내려온다. 이후 여산부인과 녹두생이는 가택신이 되어 이승의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

이처럼 수직적 방위 관계인 천상을 오고간 이들은 사람의 죽은 목숨을 환생시키는 초월적 능력을 부여받았다. 천상은 신적 역할에 맞는 초월성으로 이승에서 벌어진 부조리한 사건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승은 이승과 수평적 방위 관계에 놓인 이승의 타계(他界)이다. 저승

이 이승의 일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 9]를 살펴봐야 한다.



[그림9] 천상과 저승, 이승에 존재하는 신들

저승과 이승을 오고가는 이는 염라와 저승차사들이다. 이승의 사람들은 죽어서 혼이 되어야만 저승으로 갈 수 있다. 이승의 사람들 중 저승을 다녀온 이는 강림과 황우양이다. 강림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년장자의 딸, 과양생이의 세 아들이 변사당한 원인을 묻기 위해 염라를 찾아간 것이다. 저승의 시간으로 보름, 이승의 시간으로 3년 만에 돌아온 강림은 약속대로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자신의 마음에 든 강림을 부하로 만들고자 그의 혼을 가져가 저승차사를 시키게 된다.

황우양 역시 저승을 다스리는 대별왕의 부탁으로 대별궁을 짓기 위해 저승에 다녀온다. 그가 저승에 간 사이 그의 아내 막막부인은 소진항으로부터 고초를 겪게 된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온 황우양과 함께 소진항을 무찌른다. 이승의 세계가 평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대별왕은 이승을 다스리는 동생 소별왕 몰래 가택신을 조직하여 이승 세계를 보호하고자 한다.

수평적 방위 개념에 있는 저승과 이승을 오고간 사람들은 신적 존재

로 거듭났다. 이들의 신적 능력은 천상계의 초월성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범함을 가진 신들이 되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 덕춘과 해원 역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차사가 된 것이다.

저승의 대별왕은 종종 이승의 일에 개입하곤 한다. 대별왕은 이승의 소별왕이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태양을 처리하자 못하자 사람들의 힘을 모아 화살로 태양 하나를 떨어뜨렸다. 저승의 시왕(十王)이 된 염라도 이승에서 문제가 된 세 왕자 실종사건, 나그네 실종사건, 세 아들 변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과양생이의 업보를 밝혀주었다.

무엇보다 저승에서 이승의 부조리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저승 삼차사이다. 특히 〈이승편〉에서 동현이와 할아버지의 집이 강제 철거되는 장면에서 가택신과 힘을 합쳐 인간에 대항하는 모습은 이승의 불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10] 용역업체와 싸우는 가택신과 저승차사들<sup>28)</sup>

할아버지의 혼을 거두려 온 저승차사들은 가택신이 도움을 청하자 이승의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마취총을 쏜 덕춘에게 잘했다며 강림은 “사람 같아야 사람인 거다.”<sup>29)</sup>고 말한다. 또한 포크 레인에 맞선 철옹신은 “괴물과 싸우고 있었구나..”<sup>30)</sup>며 소멸해 간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은 이승에서 가택신은 소멸해 버리고 인간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

28) 〈이승편〉下, 194쪽, 219쪽, 224쪽.

29) 〈이승편〉下, 200쪽.

30) 〈이승편〉下, 220쪽.

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부조리와 악덕이 횡행하는 이승에 저승의 신들이 개입하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승의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은 없다. 이승에서 행한 악행을 저승에서 심판할 수 있을 뿐이다. 사라도령이 천년장자에 원한을 품고 이승을 멸망시키기 위해 심은 수레멸망악심꽃<sup>31)</sup>이 없더라도 이승은 인간끼리의 싸움으로 이미 멸망을 하고 있는 암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3. 이승과 저승 공간에 펼쳐된 아이러니

『신과 함께』에서는 삶과 죽음의 공간, 이승과 저승의 상징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아이러니의 서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웹툰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이용욱의 연구<sup>32)</sup>와 한혜원·김유나의 연구<sup>33)</sup>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웹툰이 디지털 매체로서 특이점을 갖는 서사 요인을 아이러니로 보고 이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용욱 연구에서는 웹툰에 나타난 확장과 변주된 아이러니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한혜원·김유나의 연구에서는 일상툰에 나타난 서사 구성 방식을 아이러니로 보고 이의 특징을 밝혀내었다.

본 장에서는 『신과 함께』가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하였지만, 아이러니의 서사 전략을 웹툰의 특성으로 보지 않고 『신과 함께』가 갖고 있는 이야기성의 한 특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신과 함께』는 이승과 저

31) 〈신화편〉中, 144쪽.

32) 이용욱, 「디지털서사체의 미학적 구조(4)-웹툰의 아이러니 서사전략」,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213-233쪽.

33)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툰의 아이러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3, 한국만화 애니메이션학회, 2013, 469-502쪽.

승, 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 구도에는 이미 풍자, 비판, 극적 효과를 강화시키려는 아이러니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과 함께』가 웹툰이기에 아이러니의 특성이 부각된다고 보기보다는 이 작품의 이야기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Irony)는 ‘변장(變裝)’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에이로네이아(eironia)’에서 유래했다. 아이러니는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인데, 문학비평용어에서는 아이러니를 ‘상황적 아이러니’와 ‘언어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로 구분하고 있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말하고, 언어적 아이러니는 어둡고 부정적인 주제가 밝은 어투로 말하는 것을 지칭한다.<sup>34)</sup> 극적 아이러니는 비극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극적 아이러니라고도 한다. 극적 아이러니는 상황과 언어의 아이러니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 속에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가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아이러니 기법이 문학 장르에서 주로 사용되다보니 문자를 통한 상상력에 의지한다면, 만화에서의 아이러니는 이미지와 말, 칸이 만들어 내는 공간 자체의 상상력으로 아이러니를 극대화하고 있다.<sup>35)</sup> 영화 시나리오 관점에서 서술한 아이러니의 개념은 ‘역설의 한 형태로 서로 대립되는 것을 명치시키거나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뚜렷한 대비나 반전, 혹은 역설적인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희극적이거나 비극적, 또는 스릴러적인 효과를 성취하는 기법’이다.<sup>36)</sup> 만

34) 김용직, 『문학비평용어사전』, 탐구당, 1989, 173쪽.

35) 이에 대해 이용욱은 웹툰의 경우 참여적 인터페이스를 서사 구조 안으로 끌어들여 웹툰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이용욱, 「디지털서사체의 미학적 구조(4)-웹툰의 아이러니 서사전략」,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214-215쪽).

화에서의 아이러니도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과 함께』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대치적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의 충돌로부터 상황적 아이러니와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느끼는 쾌감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 사회의 본질이 아이러니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형상화되어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3-1. 인간이 빚어낸 상황적 아이러니

〈신화편〉에 보면 천지왕이 두 아들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기회를 준다. 저승과 이승 중 두 아들은 모두 생명이 약동하는 이승의 땅을 다스리고 싶어한다.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꽃을 먼저 피워내는 사람에게 이승의 땅을 맡기겠다고 한다. 아우인 소별이는 꽃감관을 찾아가 빨리 꽃을 피우는 방법을 알게 된다. 소별이는 키우는 자의 마음을 식물에게 주어 꽃이 빨리 피는 환약을 먹는다. 대별이는 식물을 정성을 다해 키우나 소별이가 몰래 갖다 넣은 식근총 때문에 식물이 말라죽어 버린다. 비록 악취가 나는 꽃을 피웠지만 꽃을 피웠기에 소별이가 산 자들의 세상인 이승을 맡게 되고, 대별이는 망자들의 세상인 저승을 맡게 되었다.

산 자들의 공간, 생명이 약동하는 이승의 공간은 양(陽)의 공간이다. 죽은 자들의 공간, 어둠이 가득 찬 저승의 공간은 음(陰)의 공간이다. 물과 햇빛으로 생명이 움트는 살아있는 이승의 공간을 심성이 부족한 소별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망자들의 한과 슬픔으로 저주받은 저승의 공간은 심성이 따뜻한 대별왕이 다스리게 되었다.

---

36) 이정국, 「영화에서 아이러니의 종류와 그 활용 실례」, 『영화연구』 22, 한국영화학회, 2003, 197-238쪽.

이미 천지왕이 두 아들을 지상에 내려보낼 때부터 상황의 아이러니는 발생하고 있었다. 뭐케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실제 상황 간의 틈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이 상황적 아이러니는 특정 상황에서 혹은 특정 공간이 원래의 목적과 상반되게 사용될 때 발생한다. 양(陽)의 공간과 음(陰)의 공간, 소별왕의 통치와 대별왕의 통치는 표면과 실제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끊임없이 상황적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승에서 하얀 삶이라 불려던 해원차사의 상황도 그러하다. 이승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나누고 경계하고 침략하게 된 무렵, 놀라운 무술능력을 가진 군관 해원맥이 등장한다. 그는 군관으로서 누구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으로 상급자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북방 국경수비대로 좌천이 된 해원 맥은 그 곳의 강추위를 벼티며 수비대장이 되었고, 하얀 삶이라 불리게 되었다. 어느 날 오랑캐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죽인 오랑캐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모여 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 북방으로 귀향 온 장군의 명에 따라 오랑캐 토벌작전을 벌이던 중 한 부하가 아이들이 사는 집을 알려주게 된다. 국가의 명을 어기고 오랑캐 아이들을 피신시킨 해원맥은 배신자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해원맥과 함께 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덕춘이었다. 해원맥이 죽자 염라가 나타나 차사직을 제안하지만, 해원맥은 그동안 사람을 많이 죽인 죄값을 받겠다면 지옥으로 가겠다고 한다. 염라는 그런 해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37) D.C. 뭐케,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6쪽.

해원맥: 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소. 지옥에서 죄를 갚을 것이오.

염라: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북방에 오게 된 것도, 오늘 이렇게 된 것도.

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상관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저승의 시왕이며, 공명정대하다.<sup>38)</sup>

이승의 지배자와 달리 저승의 지배자는 공명정대하다는 사실, 이승의 지배자가 아닌 저승의 지배자가 제대로 된 상관이라는 사실은 갑작스런 반전을 일으킨다. 지옥이 있는 저승은 애초부터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그 곳이 공평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정반대의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저승편〉에서도 이러한 상황적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39세의 나이로 죽어 저승에 온 김자홍은 자신의 시신이 납골당에 안치된 것을 보게 된다. 납골당 로얄층에 안치되었다는 변호사 진기한의 말에 김자홍은 폭소를 터뜨린다. 이승에서 아파트를 장만해 보려고 반지하 월세를 전전 하다가 저승에 와서 아파트 로얄층에 입주한 자신의 상황이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웃기지 않아요?”라는 김자홍의 대사는 상황적 아이러니 위에 언어적 아이러니까지 중층적으로 더해진다.



[그림11] 김자홍의 납골당<sup>39)</sup>

38) 〈신화편〉上, 229-230쪽.

39) 〈저승편〉上, 57-58쪽.

〈이승편〉에서는 동현이와 할아버지가 처한 상황적 아이러니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제18화 〈운수좋은 날〉은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을 패러디하고 있다. 폐지와 고물을 줍는 동현이 할아버지는 벼려진 텔레비전을 줍는 뜻밖의 행운을 얻는다. 동현이와 친구들에게 짜장면을 사주며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굴삭기를 보게 된다.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낀 할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가고, 조왕신과 측신과 함께 용역업체 직원들과 맞서지만 결국 쓰러지고 만다.

〈운수좋은 날〉의 상황적 아이러니는 또 다른 상황적 아이러니로 이어진다. 바로 소멸 위기에 놓인 가택신을 구출해 오라는 저승 대별왕의 명이 내려진 것이다. 생명이 돌아나는 곳이었던 이승에서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가택신들이 소멸 위기에 처해지자 저승시왕과 저승차사가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성주신이 사라진 후에 남은 조왕신과 측신을 구출하러 저승차사가 동현이네 집을 찾아가게 된다. 저승차사는 동현이 할아버지를 저승으로 인도해야 하는 일과 함께 조왕신과 측신도 데리고 가야하는 모순된 이중 임무를 맡게 된다.



[그림12] 측신을 살리려는 모습<sup>40)</sup>



[그림13] 동현 할아버지의 혼을 부르는 모습<sup>41)</sup>

[그림 12]는 쓰러진 측신을 어떻게든 살려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는 저

40) 〈이승편〉下, 170쪽, 208쪽.

41) 〈이승편〉下, 170쪽, 208쪽.

승차사의 모습이고, [그림 13]은 동현 할아버지의 혼을 불러 저승으로 인도하는 모습이다. 저승차사들이 이승의 일에 개입하여 가택신을 저승으로 데려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이승에서 죽은 이의 혼을 불러가는 행위는 분명 모순적이다. 그러나 이 상황적 아이러니에서 벌어지는 모순된 행동은 오히려 이승의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고통당한 가택신과 할아버지를 저승으로 구출해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저승의 대별왕은 “생명과 죽음의 양면성을 가진 신”<sup>42)</sup>이 되는 것이다.

〈신화편〉, 〈저승편〉, 〈이승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적 아이러니는 결국 이승에서의 삶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영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이승의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질서는 곁으로 보이는 상황과 실제 상황 간의 간극을 더욱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3-2.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극적 아이러니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망이다. 극적 아이러니는 독자는 알고 있지만 주인공은 모르고 있는 대비를 통해 극적 긴장의 효과를 거둔다. 이러한 극적 아이러니는 『신과 함께』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과 함께』에 내재된 극적 아이러니는 이승과 저승의 공간 대비와 알고 있음과 모르고 있음의 대비가 일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신화편〉을 살펴보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된 사라도령은 이승에서 천년장자에게 갖은 고초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저승의 대별궁을 지으러 간 황우양도 이승에서 막막부인이 소진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몰랐다. 그리고 강림이 저승에

42) 조셉 캠벨, 『신화의 이미지』, 홍윤희 역, 살림, 2006.

가서 염라를 만나고 오는 동안 그의 부인이 강림의 무사귀환을 정성들여 신들에게 기원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신화편〉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공간 대립과 주인공이 알고 있음과 모르고 있음의 대립이 일치하고 있어,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비극적 긴장감을 더욱 높아지게 만들었다.

〈저승편〉에서는 군대 총기 오발 사건으로 암매장당한 유성연 병장의 이야기가 보조 플롯으로 나타난다. 저승에 간 김자홍이 변호사 진기한과 함께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 중심 플롯과 함께 저승차사들이 유성연 병장의 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유성연 병장의 어머니가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러한 극적 아이러니는 유성연 병장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이들에게 저승차사가 현신하는 장면에서 강화된다. 왜 저승차사가 현신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아는 독자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머니 사이에 비극적 긴장감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승편〉에서는 저승으로 간 할아버지가 초군문에서 저승으로 들어온 손자 동현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과 아직 이승에 동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 측신이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장면에서 중충적인 극적 아이러니가 생성된다. 집이 혈리고, 가택신이 소멸되기 직전 저승으로 구출되는 상황에서 동현이는 홀로 이승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조왕신이 강림차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게 된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문왕신이었던 자신의 막내아들 녹두생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조왕신은 녹두생이를 인간의 몸을 빌려 동현이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조왕신: 이젠 신으로도, 인간으로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내 아들을 이런

곳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이 집에는 미련도, 머물 이유도 없습  
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하나에요. 문왕신으로 되돌릴 거예요.<sup>43)</sup>

문왕신으로 되돌아 온 동현이는 조왕신과 함께 저승으로 구출된다. 저승문 입구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지만 이승에서 동현이로서의 기억은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또한 동현이가 문왕신이였다는 사실도, 그가 문왕신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도 모르는 측신의 괴로움이 비극적 아이러니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인간은 이승에서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욕망을 꿈꾼다. 이 욕망은 저승이 무섭고 공포스러우며 별을 받는 곳이란 두려움 때문에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승이 이승보다 오히려 더 공명정대하다는 사실을, 저승차사들이 인간보다 더 따뜻한 심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간만이 모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승에서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베풀며 살아간다면 저승에서 무사히 49일간 재판을 받고 다시 환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진실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극적 아이러니가 이승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는 『신과 함께』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를 밝혀 분석해 보았다. 이는 본 연구자가 『신과 함께』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매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는 실천적 담론 행위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실천적 담론 행위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

43) 〈이승편〉下, 251쪽.

분석 결과, 『신과 함께』는 이승과 저승의 공간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중층적으로 펼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두 계(界)에 대한 공간성을 추출해 보았다. 이 작품에서 이승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계(他界)는 천상과 저승이 있는데, 천상은 수직적 방위 개념으로, 저승은 수평적 방위 개념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계에 있는 신들의 위상도 조금씩 달랐는데, 천상의 신들은 초월적 능력을, 저승의 신들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승에서 끊임없이 행해지는 불의한 일들과 악행에 대해 타계의 신들이 개입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승은 가택신마저 저버린 비참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신과 함께』에서는 이승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타계의 신들이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이승과 저승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승의 삶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영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상황적 아이러니 속에서 독자들에게 던졌다.

또한 죽지 않는 영생을 꿈꾸는 인간들에게 알고 있음과 모름의 대비를 통한 극적 아이러니가 『신과 함께』 텍스트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이승과 저승의 공간 대립은 암과 모름의 대립과 일치하고 있었다. 결국 혼존한 이승의 가택신이 모두 저승으로 구출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무지에 가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무자비한 폭행이 이승에 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신과 함께』는 묻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과 함께』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는 독자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동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밝혀졌다. 『신과 함께』는 한국 전통 신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선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줄 아는 윤리적 의식을 갖춘 이승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주호민, 『신과 함께』, 애니북스, 2015.(총 8권)

### 2. 논문과 단행본

강미선, 「웹툰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웹툰『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5권,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11, 89-115쪽.

김대범, 「〈신과 함께〉의 체험 공간화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7-22쪽.

김용직, 『문학비평용어사전』, 탐구당, 1989.

김정숙, 「전통문화 교육 자료로서 웹툰의 활용에 대한 고찰-〈신과 함께〉에 반영된 저승관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 171-200쪽.

김진철, 「웹툰의 제주신화 수용 양상-『신과 함께』〈신화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2015, 37-62쪽.

\_\_\_\_\_, 「제주신화〈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한국콘텐츠학회, 2015, 85-95쪽.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211-243쪽.

류철균·이지영, 「자기 재현적 웹툰의 주제 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19, 대중서사학회, 2013, 117-147쪽.

\_\_\_\_\_, 「형성기 한국 웹툰의 장르적 특질 연구」,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567-600쪽.

박기수, 「웹툰 스토리텔링, 변별적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애니메이션연구』 1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44-64쪽.

박인하, 「한국 웹툰의 변별적 특성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82-97쪽.

소인호, 「저승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초기소설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7, 우리문학회, 2009, 103-130쪽.

안소라·이원석, 「카툰의 서사 연구-S.채트먼의 『이야기와 담론』 이론의 서사의 전제 조건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3,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223-246쪽.

오세정, 「한국 신화의 타계(他界: the other world) 연구-수평적 방위 개념을 중심으

- 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17- 335쪽.  
윤영석, 「한국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한국 신화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1,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553-578쪽.  
이용우, 「디지털 서사 자질 연구-편집, 편집적 사고, 편집자»,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2011, 335-362쪽.  
\_\_\_\_\_, 「디지털서사체의 미학적 구조(4)-웹툰의 아이러니 서사전략», 『비평문화』 34, 한국비평문화학회, 2009, 213-233쪽.  
이정국, 「영화에서 아이러니의 종류와 그 활용 실태», 『영화연구』 22, 한국영화학회, 2003, 197-238쪽.  
임학순 외, 『문화농촌·창조농촌』, 북코리아, 2015.  
최수영·이남희, 「한국과 일본의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저승신화 연구-바리데기와 이자나기이자나미 신화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9, 인문콘텐츠학회, 2015, 187-211쪽.  
황인순,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 <신과 함께>와 <차사본풀이>의 비교를 통해»,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53-384쪽.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에드워트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아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윤, 1999.  
조셉 캠벨, 『신화의 이미지』, 홍윤희 역, 살림, 2006.  
팀 크레스웰, 『장소』,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2012.  
D. C. 뒤케,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Abstract

A study on spatiality and irony in 〈With god〉

Lee, Sang-Min(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nalyzes spatiality and irony in 〈With god〉. And it is regarded as being connected to practical discourse acts. 〈With god〉 appears clearly spatial confrontation between this world and afterlife. This study reveals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space of this world and that of afterlife. In addition, this study looks at the process of characters' actions that cause the irony of satire and criticism.

The other world has heaven-life of vertical relation and afterlife of horizontal relation. Beings of transcendent god class live in heaven-life and the gods with extraordinary abilities live in afterlife. On the other hand, placelessness that destroys self-identity occurs in this world. Tension of irony is reinforced as an event that the opposite space of this world and afterlife escapes from this world occurs with the help of afterlife.

Situational irony and dramatic irony have been found here and there in 〈With god〉. Situational irony occurs where inherent prediction fails. Dramatic irony occurs where knowing and ignorance contradicts each other. Irony in 〈With god〉 raises question whether life in this world is righteous. This raises question whether our ignorance conceals brutal assault.

This study sought to read the layers of various events in the 〈With god〉 with spatiality and irony.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at symbolic meanings of the layers of various events in the 〈With god〉 with spatiality and irony makes the acts of creating one's own reflection.

(Key Words: 〈With god〉, narrativity, spatiality, irony, practical discourse)

논문투고일 : 2016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8월 3일

수정완료일 : 2016년 8월 8일

제재확정일 : 2016년 8월 12일